

# 강진군, 마을 공동급식 실시

### 농번기철 농촌 고령화·여성화 현상 일손부족 60개 마을 1억6200만원 지원...한 곳당 270만원



강진군은 농번기철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강진군 도암면 덕촌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식사하는 모습.

강진군은 농번기철 농촌지역의 고령화·여성화 현상으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

다. 마을 공동급식은 농산물 파종과 수확 시기 등 농번기철에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이 모여 점심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30일, 한 곳당 270만원 이내 부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강진군은 지난해보다 380만원을 증액한 1억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4개 마을이 늘어난 총 60개 마을에 공동급식을 지원한다.

강진군 도암면 덕촌마을 서정대 이장은 "농사일이 바쁘고 힘은 들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먹는 공동급식 제도는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걸 넘어서 즐거움과 정을 먹는 시간이다"며 "농사일이 물리는 바쁜 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승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공동급식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농사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이웃 간의 정도 돈독히 하는 등 마을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강진=김명일 기자

## 꽃송이로 하얗게 물든 목포의 봄

만개한 이팝나무 장관·느티나무·은행나무 등 녹음 우거져

목포의 봄이 꽃과 나무의 생기로 가득하다.

목포는 유달산, 양울산, 입암산, 안장산, 용리산, 부주산 등 도심 안에 아늑한 산들이 있어 도심 안에서 녹색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이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용리산과 입암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가 개설돼 도시 안에서 더욱 편리하게 산책하며 힐링할 수 있는 연결망이 확충됐다.

산 뿐만 아니라 가로수도 녹색의 생기를 더하고 있다. 5월에는 특별히 주립주립 핀 쌀알모양의 하얀 이팝나무 꽃이 자태를 뽐내며 시각적 청량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용해동주민센터에서 3호광장~2호광장~목포역~동명동사거리 구간이 만개한 이팝나무 꽃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올해 4월 현재 목포에 가로수로 식재된 이

팝나무는 2,833그루다. 원도심에 1,583그루가 식재된 가운데 북항로, 영산로, 용당로, 산정로 등에 많이 분포돼 있다.

이팝나무가 봄의 절정을 알린다면 지난 4월에는 벚나무(1,717그루)가 활짝 핀 꽃으로 봄의 도래를 반겼다. 유달산, 입암산 등이 만개한 벚나무로 꽃동산을 이룬 가운데 주변 도로도 꽃잔치가 펼쳐졌다.

벚나무, 이팝나무 등이 꽃으로 도시를 장식한다면 느티나무(4,151그루), 은행나무(4,271그루), 회화나무(1,089그루), 메타세콰이어(403그루) 등은 무성한 줄기와 가지, 푸른 잎의 녹음(綠陰)으로 생명감을 불어넣고 있다.

## 해남 물김 생산량 9만 3천여톤, 전년대비 4.5% 늘어

위판액 983억원...1000억대 생산 눈 앞



해남군이 2018년산 물김 생산을 종료한 결과 전년대비 4.5% 증가한 9만 380톤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올해는 양식 초기 수온이 낮아 수확량이 잠시 주춤했으나 점차 수온을 회복하는 등 해황이 안정되고

지자체의 양식 면허지 확대 등으로 전체 물김 생산량이 늘어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다만 최근 5년간 물김 위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역대 생산을 곧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친환경 김 어망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 양식 기자재 공급, 김 육상채묘, 김 활성화 처리제 지원 등 10종의 양식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해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해남 김 산업의 연건 분석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역 내 주도형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김 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물김 생산지이자 마른김 가공공장 또한 전국 최대로 100개소가 넘는 등 어민소득 증대에 특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해남군의 2018년산 김 양식은 827어가에서 9611ha 면적에 12만 5000여척을 시설하고 있다.

불비는 곳이다. 특히 5일시장이 열리는 장남에는 시장대부까지 차량이 통행하여 내방객의 불편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왔다.

임용기 영암읍장은 "차 없는 5일 시장 운영이 대형 할인점등에 밀려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안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상인과 주민 등 모두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며, 안전한 시장길 조성과 더불어 불거리도 풍성한 재래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영암읍 "걸어가는 전통 5일 시장 길"

주민자치위원회 계도활동 전개로 고객중심 쇼핑환경제공

영암읍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영암읍 5일시장이 영암방문의해를 맞이하여, "차 없이 걸어가는 전통 5일시장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암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문철호)가 중심이 된 이번 사업은 영암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상반기 중점사업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주

요 진입로 3개소에 차량통제 안내 입간판 설치와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한달여 경과한 지금은 차량통행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을 방문한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안전한 쇼핑은 물론 5일시장 주변 교통질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5일시장이 펼쳐지는 영암읍 전통시장은 영암읍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도 차량과 보행자가

## 곡성군, 2018년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협의회 개최

벼 재배시 제초제 대응 사용 친환경농자재

곡성군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5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모내기철을 앞두고 벼 재배단지 새끼우렁이 공급을 위해 각 읍·면 사무소, 농협 업무담당자, 우렁이 생산자 단체 등 36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벼 재배시 제초제 대응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농자재 사용으로 농가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곡성군 전역에 부구새우가 자라는 환경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친환경단지 1과 1반단지 3,165ha에 우렁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우렁이 공급사업은 벼 재배단지 1ha에 최대 12kg을 일괄 공급하였으나, 우렁이 공급량이 적어 제초효과가 떨어진다는 농업인

들이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서 2017년 3회에 걸쳐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친환경단지에 치패는 15kg, 중패 50kg 중 농가 선택에 따라서 확대 공급을 하며 이를 위해 군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변경된 사업내용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우렁이 공급을 당부했다.

곡성=김명일 기자

## '교통문화 우수' 영암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영암군이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교통 문화 우수 도시로 선정되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교통문화지수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

로 평가한 결과로, 금년 평가는 시민들의 운전형태, 보행형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으로 지자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률, 교통안전노력도, 현장조사 등을 통한 11개 조사항목에서 실시했다.

군은 그동안 경찰서, 영암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차로

및 스쿨존 주변에서 교통질서계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군 담당자는 "2018년에도 영암군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CCTV 및 신호등 신설 등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